

###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

# “권역내 산업혁신구역 적극 지정… 용적률 400%까지 완화”

####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공간 목표 온수산업, 첨단제조업 재구조화 금천 공군부대 용도 규제 해제

서울 서남권이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되살아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남권을 산업·주거공간 혁신에 녹색매력을 더한 '신경제·نش생활 중심도시'로 바꾸는 도시 대개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서남권은 준공업지역 규제와 재생사업 위주의 도시개발로 발전 적기를 놓쳐 건물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누적돼 서울 전체 지역 중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해졌다”면서 “하나 서남권은 가용 부지가 많고 첨단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으며 서울 청년의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규제와 제도를 뜯어고쳐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인 서남권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 규제를 개선해 산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육성을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금천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조감도. /서울시

융합된 핵심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맞춤형 사전기획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등 대규모 저이용 부지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동반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온수산업'은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와 김포공항브

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노선도 구축한다. 연내 여의도에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 조성을 완료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주거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 양천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 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적용해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킨다.

이날 오 시장은 서남권에 물길과 초록길을 넓혀 녹색감성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잇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마련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봉천천, 도림천과 같은 복개하천은 2026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안양천에는 내년까지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을 설치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교권침해 피해 시 '1395' 신고 가능해진다

#### 교육부 교권보호 제도 정비·시행 학교·교육지원청 등 기관 차원 대응

새 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1395'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이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부 세종 청사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

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는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

## 인천시, '2023년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광역 1위)로 선정돼, 이 평가가 실시된 이후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에는 기관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용자(사회적 약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인천의 품에서 부모의 품처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전기차 1만1578대 보급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전기차 1만 1578대를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중 민간 부문은 1만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다.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액 지원 기준 차량(승용차) 가격은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 690만원·시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6 | 해질 / 18:24

2월 28일(수)  
음력 : 1월 19일

수도권 날씨  
2 ~ 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8, 동두천 -1/8, 가평 -2/9, 파주 -1/8, 서울 2/9, 양평 0/9, 수원 3/9, 용인 3/9, 평택 0/9, 백령도 3/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지치는 의료 현장... 병상 축소·환자 불편 /사진 뉴시스  
▲'직무태만 만연'...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 무더기 재판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도 법정제재  
▲檢 "대포폰으로 민주당 공천 관련 연락"...정진상 측 "전부 허위"



▲공수처, 임은정 비밀누설 수사 확대...한동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  
▲YTN 최대주주 변경 법정공방...“불법적 의결” vs “충분히 심사” /사진 뉴시스